

## 광주·전남 통합논의 ‘올스톱’...언제 다시 재개되나

공항이전 문제 꼬여 도의회 용역비 2억 삭감 ‘감정대립’  
이달 광주전남연구원 용역 발주 계획·실무작업 멈춰  
영남·충청권 ‘몸집불리기’ 속도...“뒤쳐질라” 시도민 우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시·도통합 논의가 새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영남권과 충청권이 수도권에 맞서기 위해 통합과 연대 등을 통해 몸집불리기에 속도를 내는 것과 대조를 보이면서 지역민의 우려 목소리가 들린다.

공항이전 문제로 꼬이게 된 시·도 통합 논의가 언제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새해 초 발주 예정이었던 시·도 행정통합 연구용역이 올스톱 상태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해 11월 2일 시도통합 논의에 합의하고 광주전남연구원과 1년간 공동연구용역 실시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에 들어갔지만, 합의문을 만든지 1개월여만에 광주공항 이전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도 실무진과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달 연구용역 발주를 목표로 용역 과업지

시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광주시가 광주공항을 조건없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하면서 전남도의 반발을 사게 됐다.

급기야 전남도의회가 시·도통합 용역비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광주시는 2억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용역은 준비 단계부터 올스톱 상태다.

문제는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시·도간 액션이 없다는 것이다. 당장 전남도가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추경은 4월이나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가다간 1년간 계획했던 연구용역이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해들어 되레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간 공항이전을 놓고 날선 공방전만 지속되고 있다.

영남권과 충청권에서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

해 경제연합 성격인 메가시티나 행정구역 통합을 속도있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세인 통합 논의에서 다른지역 보다 뒤지거

나, 아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등을 하면서 시간을 갖고 통합을 준비하자던 시·도가

공항이전 문제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면서 “공항이전 문제와 별개로 대승적으로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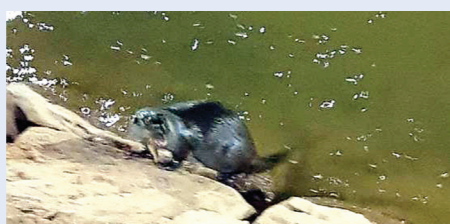


초교 졸업생 기다리는 학부모들

1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천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학부모들이 졸업식을 치른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

###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에 수달 가족 서식

어미와 새끼 5마리 활동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경관물길에서 생태계 환경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동물인 수달이 발견됐다.

12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오룡지구 경관물길에 저녁 무렵 어미와 새끼로 보이는 수달 5마리가 떼를 지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 수달가족은 경관물길 물속을 오가며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가하면 물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목격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은 천연기념물 330호로 낮에는 휴식하고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로 2급수 이상의 물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룡지구는 녹지공간을 특화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1단계 74만㎡를 조성해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2024년까지 280만㎡에 2만9800여 세대 약 2만5000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 한파·폭설로 생육악화·출하부진...채소류 오름세 행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본부

최강 북극발 한파와 폭설 여파로 일부 시설 하우스 채소류 가격이 들쭉이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12일 제공한 농산물 소식지 '알마요' 가격 정보에 따르면 한파와 폭설로 인한 생육여건 악화와 산지 출하작업 부진 등으로 채소류 대부분 품목이 오름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채소류는 지난 11일 광주 양동시장 소매가격 기준으로 오이·상추·애호박 가격 등이 2주 전 대비 상승했다.

가장 크게 오른 상추(100g 기준)는 900원으로 2주 전(700원) 대비 가격이 28.57% 올랐다.

2주 전 1500원에 거래됐던 애호박(1개 기준)은 1700원으로 13.33% 올랐고, 오이(취청·10개 기준)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가격이 12.50% 상승했다.

**광주 양동시장 소매가격 기준  
오이·상추·애호박 가격 급등  
저장비용 증가 등 양념채소도 ↑**

여기에 장기간 저장으로 인한 감모율과 저장비용 증가로 일부 양념채소 가격도 급등했다.

1년 전 1500이던 양파(1kg 기준)는 2700원으로 가격이 80% 폭등했고, 견고추(화건)도 1

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80% 급등했다.

양념류인 대파(1kg 기준) 가격도 3500원으로 1년 전(2000원) 보다 75% 폭등했다.

제철 과일류 중 감귤은 산지 출하조절과 간식용 수요증가 등으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딸기는 제철을 맞아 공급물량 증가로 내림세를 보였다.

aT 관계자는 향후 2주간 가격 전망에 대해 “한파 특보가 대부분 해제됨에 따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간 출하 회복이 어려운데다 추운날씨에 따른 생육장애 등으로 산지 출하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무·대파 등 채소류 대부분의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미희 기자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리를 두어 주세요!